
2012년 미국 대선과 라티노¹⁾

이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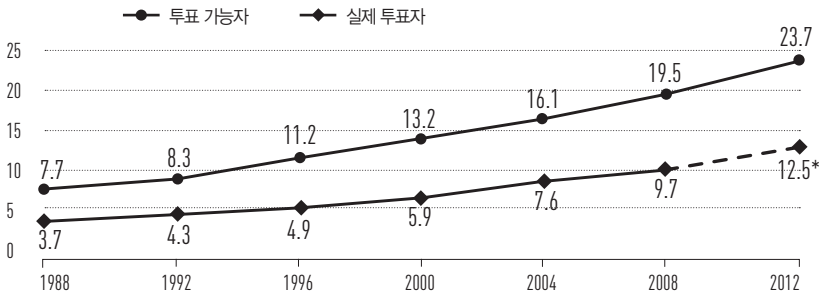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1. 라티노 인구의 증가와 선거 참여 추세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라티노에게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는 라티노 투표의 71%를 얻었고, 이것은 그가 격전지 주들에서 승리하면서 재선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오바마의 재선과 라티노 지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분석은, 미국 정치 특히 대선 이후 공화당의 미래와 관련해 주요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선거에서 라티노의 선택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미국 내 정치 지형에서 라티노가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갖게 될 투표 파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참고문헌의 글을 요약, 정리했다. 도표는 퓨 히스패닉 센터(Pew Hispanic Center)의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자료마다 관련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주로 이 센터의 것을 참고로 했다.

| 도표1 | 1988~2012 대통령 선거에서 라티노 참여율



주 | 투표 가능자는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임.

자료 | 1988~2008년은 11월 인구조사의 첨부자료에 대한 퓨 히스패닉 센터의 도식, 2012년 투표 가능자는 8월 인구 조사에 대한 퓨 히스패닉 센터의 도식, 2012년 실제 투표자는 전국 출구조사와 언론과 선거 조사 전문가가 기록한 수치에 기반하여 퓨 히스패닉 센터가 추산함.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라티노의 선거 참여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8년 대선에서 라티노 유권자의 약 50%에 해당하는 970만 명이 선거에 참여했고, 2011년 중간 선거에서는 약 31%의 라티노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했다. 현재 미국 인구의 약 17.5%를 차지하고 있는 5,300만 라티노 인구 중에서 이번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전체 투표자의 10%에 불과했다. 등록된 라티노 유권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6% 증가했지만 라티노 투표자가 전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5%에서 2012년 10%로, 2% 늘어난 데 그쳤다. 즉 투표 가능한 2,400만 명 라티노 중에서 약 1,250만 명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투표율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투표자 등록을 한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라티노 유권자가 250만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860만의 라티노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즉 투표를 한 1,250만 명의 유권자 수에 가까운, 등록은 했지만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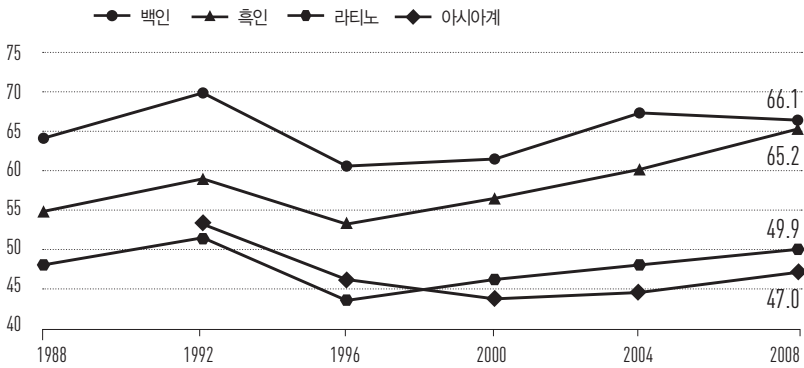
등록을 하지 않은 1,110만에 달하는 잠재적인 라티노 유권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티노 표가 보여준 집단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라티노는 선거 잠재력을 완벽하게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여전히 라티노는 낮은 참여율로 인해 저대표되고 있으며, 라티노를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선거 전략 그리고 정당과 선거 운동 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라티노 인구의 투표율 비중이 낮은 이유는 투표권자 등록률과 실제 투표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티노의 투표율 비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다양한 인종, 즉 중족 집단과 비교했을 때 라티노가 가장 젊은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라티노 집단의 평균 나이는 27세이고, 이 중 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의 경우는 18세로 매우 낮다. 특히 비라티노계 백인이 평균 42세인 것을 고려하면 라티노 인구의 연령적인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라티노의 경우 18세 이상인 선거 가능 인구 비중이 곧 급격하게 상승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퓨 히스패닉 센터의 추산에 의하면 2012년과 2030년 사이 미국에서 선거 가능 인구 증가수의 약 40%가 라티노이다. 그때 가면 지금 약 2,400만의 라티노 유권자 수는 약 4,000만에 달하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또한 라티노의 경우 투표 참여율과 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두 가지 비율이 다른 중족 집단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 수는 20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라티노 유권자가 갖는 미래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라티노 인구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4,000만 이상의 라티노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1,150만 명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라티노의 투표율은 백인이나 아프리카계 인구

| 도표2 |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 투표율 1988~2008



주 | 라티노는 모든 인종을 포함하고 있음.

백인, 흑인, 아시아계는 비라티노계 인구만 포함.

비라티노계 아시아계 인구에 대한 1988년 자료는 이용 불가.

자료 | 퓨 히스패닉 센터

보다 훨씬 저조하다. 나머지 인구 중 540만은 그린카드를 소유한 성인으로, 곧 시민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시민권 신청률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49% 대 72%). 또한 710만 명이 성인 불법 체류자이고, 1,760만은 18세 미만 인구다. 이들 18세 미만 인구 중 93%는 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로, 속지주의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표 가능 연령이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집단이다. 현재 매년 약 80만 명의 라티노가 18세가 되어 유권자가 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매년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년 내에 약 1,600만 명의 새로운 라티노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고, 라티노 선거권자가 4,000만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인과 흑인 수준의 선거 참여율을 보여준다면, 2012년보다 두 배나 많은 투표자 수를 기록하게 되고, 라티노 집단이 갖는 투표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보다 많은 라티노가 선거에 참여했을 때 갖는 영향력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전국

규모의 합산보다는 개별 주를 대상으로 했을 때 명확해진다. 애리조나와 플로리다같이 두드러진 경합 주에서, 라티노의 투표율 증가는 연방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2. 2012년 선거 결과와 라티노

퓨 히스패닉 센터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가 얻은 71%에 달하는 라티노 지지율은 1996년 72%의 지지율을 기록한 클린턴(Bill Clinton)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대략 오바마는 6,590만 표로 51%를, 롬니(Willard Mitt Romney)는 대략 6,090만 표로 47%를 얻었다. 득표 차이는 대략 500만 표로 약 3.7%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전체 투표수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선거인단 수의 차이는 매우 크다. 오바마는 26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워싱턴 D.C.)에서 승리하면서 3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데 반해, 롬니는 24개 주에서 206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선거 운동 막판 격전 주로 분류된 9개의 주에서 오바마는 2%의 차이로 진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8개 주(플로리다, 버지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햄프셔, 아이오와, 오키오,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중 플로리다의 경우 약 1%포인트, 위스콘신의 경우 7%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다.

2012년 선거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전국 규모 투표율의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주 단위에서 투표율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5%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인 주는 2008년 선거에서 6개인 데 반해, 2012년 선거에서는 4개 주(플로리다, 오키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뿐이다. 또한 2008

년에는 25개 주가 15%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컬럼비아특별구와 27개 주가 15%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렇듯 2012년 선거의 결과는 전국 규모에서는 차이가 적지만, 많은 주에서 거의 일방적인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최근의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다. 몇몇 인구가 많거나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23%포인트의 차이로 55석, 뉴욕의 경우 27%포인트 차이로 29석, 일리노이의 경우 17%포인트 차이로 20석을 오바마가 차지했다. 반면 롬니의 경우 16%포인트의 차이로 텍사스에서 승리했고 38석을 차지했다.

2012년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오바마가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요 경합 주인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인데, 이들 주에서 라티노 투표권자의 비중과 지지율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는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던 플로리다에서 약 1%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는데, 여기에는 라티노의 투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플로리다에서 라티노 투표자는 60% 대 39%의 비율로 오바마를 지지했고, 이는 2008년의 57% 대 42%에서 약 3%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플로리다 주의 투표자 중에서 라티노 비중이 2008년 14%에서 17%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은 플로리다의 라티노 인구 구성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플로리다에서 라티노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쿠바계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쿠바계 인구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출구조사에 의하면, 라티노 유권자의 34%가 쿠바계이고 57%가 비쿠바계다. 쿠바계 유권자의 지지가 오바마와 롬니 사이에서 49% 대 47%로 분열된 데 반해, 비쿠바계 유권자의 다수인 66%는 오바마를, 34%는 롬니를 지지했다.

한편 라티노 내에서도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성별로 보면, 오바마를 지지하는 남성 비율이 65%인데 비해 여성들은 76%가 오바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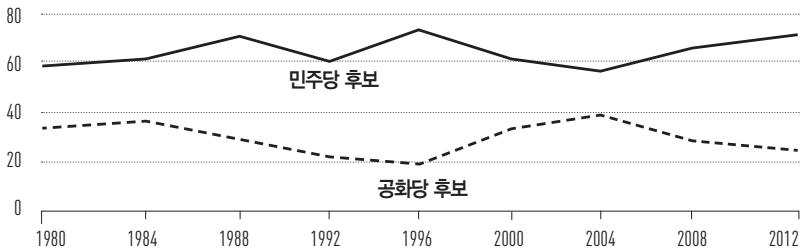
지지했다. 라티노 청년층은 74%가 오바마를 지지했는데, 미국 전체 청년층의 오바마 지지율이 60%인 것에 비하면 라티노 청년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과 소득 차이에 따라서도 오바마 지지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대졸 이상 라티노 인구의 62%가 오바마를, 35%가 롬니를 지지한 데 비해, 학위가 없는 라티노의 75%가 오바마를, 24%가 롬니를 지지했다. 또한 가구당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유권자 중 82%가 오바마를, 17%가 롬니를 지지했고, 5만 달러 이상의 가구 소득을 가진 라티노 중에서 59%가 오바마를, 39%가 롬니를 지지함으로써 저소득 및 저학력 라티노 집단의 오바마 지지가 더 강력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라티노 내부의 성별, 학력별, 소득별 차이에 따라 오바마 지지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라티노 전체 수치는 71% 대 23%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바마에 대한 라티노 집단의 지지가 강고하다.

한편 출구조사에서 미국이 오늘날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라고 답한 라티노 투표자는 60%로, 이는 전체 투표자의 59%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 밖의 문제는 의료 서비스(18%), 연방 예산 적자(11%), 대외 정책(6%) 순이었다. 라티노와 관련해 주요한 선거 쟁점이었던 이민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출구조사에서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 물었는데, 77%의 라티노는 합법적 신분 획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고, 18%는 추방을 주장했다. 전체 투표자 중에서 65%가 합법적 신분 취득을 위한 기회 제공을 선택하고, 28%가 추방을 선택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본 것처럼, 오바마의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플로리다를 포함한 핵심 격전 주에서 라티노 집단이 보여준 강력한 지지였다. 미국 대선에서 라티노 집단이 갖는 이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라티노 유권자의 절대다수는 아직도 선거 운동의 집중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국라티노공직자협의회 선거 직전 조사에 따르면, 라티노 투표자의

31%만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 혹은 선거 관련 조직으로부터 선거 참여 유권자 등록을 권유받았다. 또한 미국 히스패닉상공회의소가 격전지 10개 주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어 광고에 쓰인 돈이 총 광고비의 6.2%밖에 되지 않았다. 라티노가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던 이번 선거에서도, 라티노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선거 기간 동안 주요한 대상이 되지 못했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광고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표3 | 대통령 선거에서 라티노 투표 1980~2012



(당선자 굵은 글씨)

연도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민주당 우세
1980	지미 카터 56%	로널드 레이건 35%	+ 21
1984	월터 먼데일 61%	로널드 레이건 37%	+ 24
1988	마이크 듀카키스 69%	조지 H. W. 부시 30%	+ 39
1992	빌 클린턴 61%	조지 H. W. 부시 25%	+ 36
1996	빌 클린턴 72%	밥 돌 21%	+ 51
2000	앨 고어 62%	조지 W. 부시 35%	+ 27
2004	존 케리 58%	조지 W. 부시 40%	+ 18
2008	버락 오바마 67%	존 매케인 31%	+ 36
2012	버락 오바마 71%	미트 롬니 27%	+ 44

주 |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표시하지 않음. 1992년 무소속 후보인 로스 페로는 라티노 표의 14%를 얻음. 민주당 우세는 선거 후에 계산되었음.

자료 | 퓨 히스패닉 센터의 1980~2012년 전국 출구조사 분석

3. 오바마 승리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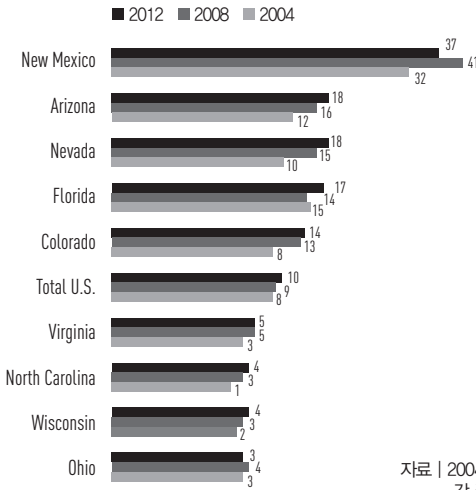
2012년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오바마가 처한 정치적 지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 후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연임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경제 상황하에서는 2차 대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선거 전략가들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많은 점에서 2012년 선거 지형은 오바마에게 불리했지만,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재선에 성공하자 공화당의 지도부와 선거 전략가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오바마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당 지지도가 양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는 인종적·이념적·문화적 성향에 따라 심각하게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지지도가 양분되고 주별로 정당 지지도가 고착화됨으로써 2008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켈럽비아특별구를 비롯해 50개의 주 가운데 48개 주가 동일한 정당을 지지했고, 단지 인디애나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민주당 지지에서 공화당 지지로 변했다. 2008년과 2012년 선거의 결과는 각 주에서 정당 지지도의 지속성을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지지도의 분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국 출구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93%는 롬니에게 투표했고, 민주당 지지자의 92%는 오바마를 지지했다. 이 수치는 1972년 출구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정당 충성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당 충성도가 강화된 것은, 정당 지지율이 미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감소하는 백인 다수 세력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백인 소수 세력 사이의 차이,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이념적인 차이, 그리고 가치나 도덕 등을 둘러싼 문화적 차이 등이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선거에서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났고, 2012년 선거에서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문화적 추세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고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비백인 소수 세력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임을 고려한다면 민주당 지지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오바마의 승리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새로운 투표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경제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 다수가 공화당이 지배적인 선거구나 주 출신이라는 점과 현재의 공화당 주류의 보수주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표4 | 대통령 선거의 라티노 유권자 비중 2004~2012



자료 | 2004, 2008, 2012년 전국 여론조사, 출구조사 및 각 주 출구조사에 대한 퓨 히스패닉 센터의 분석

선거 결과와 관련한 공화당 지도부와 선거 전략가들의 우려는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즉, 민주당 후보는 최근 6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총 투표수로는 다섯 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선거 이래로 오바마가 얻은 332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한 공화당 후보는 없었다. 이제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후보보다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선호한 주로부터 훨씬 많은 수의 선거인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은 2000년 이래로 네 번의 선거에서 각 정당이 매번 승리했던 주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민주당이 242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19개 주에서 승리한 반면, 공화당은 177명을 가진 21개 주에서만 승리했다.

이러한 변화는 라티노 투표자 수의 급격한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뉴멕시코는 경합 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당 지지 주로 변했고, 콜로라도와 네바다 같은 주는 공화당 성향에서 민주당 지지로 바뀌었다. 플로리다 주 역시 비쿠바계 인구의 증가는 오바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즉 2000년 선거에서 이들 세 개 주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국 지지율과 비교해 평균 4.5%포인트 정도 낮았던 곳인데, 2012년 선거에서는 전국 지지율보다 3.7%포인트 더 높았다. 이처럼 인종적 다양성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입장의 증가는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기본적인 상수가 되었다. 이들은 백인이나 보수적인 유권자보다 민주당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 결과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다시 오바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갤럽 조사에 의하면 비백인의 경우 78%가 오바마의 1기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반해, 백인은 40%에 불과했다. 이러한 수치는 2012년 선거에서 오바마가 이들 그룹에서 받은 표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2012년 이후에도 현재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1992~2012년 사이에

유권자 인구에서 비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8%로 증가했고, 앞으로 18세 이상이 되어 선거권을 가지게 될 인구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상의 변화는 최근의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이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라티노 집단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소수 세력 그룹이고, 이들의 증가하는 투표력은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처럼 인구 구성상의 변화와 사회적 이슈나 가치 등에서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강화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4. 라티노와 이민 이슈

이런 흐름 속에서 선거 전문가인 게리 세구라와 린 트라몬테는 공화당이 반(反)이민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구라는 2012년 선거에서 라티노가 전국적인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파악한다. 즉 공화당이 2004년 선거에서 부시가 얻었던 라티노 투표율만큼의 투표율만 얻었다면 롬니가 승리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롬니가 전국 라티노 투표율에서 부시가 얻었던 42%를 얻었다면, 전국 투표수에서 앞설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의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이 취하는 이민에 대한 강경 정책은 라티노의 표심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라티노 여론조사 기관인 라티노 디시전스(Latino Decisions)와 미디어 그룹 임프레미디어(ImpreMedia)가 공동으로 실시한 선거 직전 조사에서, “공화당이 보다 포괄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생각이 있

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31%의 라티노 투표자는 공화당에 투표할 수 있다고 답하고, 11%는 그렇지 않다, 41%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라티노 득표율 4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민 이슈와 관련해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라몬테는, 롬니가 2012년 1월 23일 불법 이민자의 추방이라는 강경 입장을 취하면서 이미 패배하기 시작했고, 오바마는 2012년 6월 15일 드리머즈에게²⁾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미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역시 집권 1기 첫해에 이주와 관련한 과감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4만 6,000명을 포함해서 약 120만의 라티노를 추방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는 드리머즈 관련 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라티노 투표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1년 9월 7일 자 갤럽 조사에 따르면, 라티노 지지율은 월별 최저치인 48%까지 추락할 정도였다. 오바마의 엄격한 이민 정책은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었고, 스페인어 미디어의 부정적인 비판을 야기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라티노 지지율 저하에 직면한 오바마는 선거 분위기 반전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라티노의 지지율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이민과 관련한 긍정적인 태도가 라티노의 민주당 지지의 주된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롬니가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보인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작년 6월 어린 불법 이민자 추방 금지라는 오바마가 취한 행정 명령은 라티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라티노 디시전스의 선거 전날 조사에 의하면,

2) 오바마는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라는 말 대신 '꿈이 있는 사람들'(DREAMer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오바마 정부의 불법 이주자 관련 법안을 드리머즈(DREAMers)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티노 유권자 절반은 롬니가 “라티노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18%는 “라티노에 대해 적대적”이라 답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티노 유권자의 66%는 “오바마가 진정으로 라티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 규모 선거에서 승리를 좌우할 정도로 성장한 라티노 집단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라티노 집단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이민법 개혁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매년 80만 명의 라티노가 18세가 되며,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이들 젊은 유권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전역의 라티노 네트워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정 후보자나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의 부모를 가리켜 ‘범죄자’라고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앞에서 보았듯이, 라티노 집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일자리, 교육, 의료를 들고 있고, 이는 비라티노 집단의 관심도와 거의 유사하다. 이민과 관련한 이슈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9%다. 그러나 비라티노 집단과 달리 라티노의 정체성 구성, 그리고 자기 현실과의 밀접한 상관관계로 인해 이민은 여전히 중요한 파급력을 가진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직전 조사에 따르면, 라티노 투표자의 60%가 불법 이민자인 친구나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이민 개혁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라티노의 실질적인 삶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라티노가 전통적인 정당 지지 성향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시의 경우에서처럼 일정하게 사회적 이슈나 전력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후보나 정당은 라티노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승부처가 되었던 몇몇 주의 경우 라티노

유권자 수가 득표율 차이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 라티노 친화적인 어젠다를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는 미 대선과 미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yres, Whit and Jennifer Sevilla Korn. 2012. "The Hispanic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Republicans." Resurgent Republic and the Hispanic Leadership Network, December 12.
<http://hispanicleadershipnetwork.org/wp-content/uploads/2012/12/RRHLNDec12HispanicMemo.pdf>
- Barreto, Matt. 2013. "What the GOP has to gain – and lose – among Latinos when it comes to immigration reform." Latino Decisions, March 21.
<http://www.latinodecisions.com/blog/2013/03/21/what-the-gop-has-to-gain-and-lose-among-latinos-when-it-comes-to-immigration-reform/>
- Hugo Lopez, Mark and Paul Taylor. 2012. "Latino Voters in the 2012 Election." Pew Hispanic Center.
<http://www.pewhispanic.org/2012/11/07/latino-voters-in-the-2012-election/>
- Hugo Lopez, Mark, Seth Motel, and Eileen Patten. 2012. "A Record 24 Millon Latinos Are Eligible to Vote, But Turnout Rate Has Lagged That of Whites, Blacks." Pew Hispanic Center.
<http://www.pewhispanic.org/2012/10/01/a-record-24-million-latinos-are-eligible-to-vote/>
- "New Report: 2012 Elections Offer Takeaways for 2013 Immigration Debate," 2013. America's Voice, January 3.
<http://americasvoiceonline.org/research/new-report-2012-elections-offer-takeaways-for-2013-immigration-debate-2/>
- Sanchez, Gabriel R. 2013. "The Untapped Potential of the Latino Electorate."
<http://www.latinodecisions.com/blog/2013/01/15/the-untapped-potential-of-the-latino-electorate/>
- Segura, Gary. 2013. "The Political Calculus of Immigration Reform: What Republicans and Democrats Stand to Gain or Lose in the Upcoming Debate." Latino Decisions.
http://www.latinodecisions.com/files/6213/5896/9081/AV_Webinar_Jan_23_2013.pdf
- Taylor, Paul, Ana Gonzalez-Barrera, Jeffrey Passel, and Mark Hugo Lopez. 2012. "An Awakened Giant: The Hispanic Electorate Is Likely to Double by 2030." Pew Hispanic Center.
<http://www.pewhispanic.org/2012/11/14/an-awakened-giant-the-hispanic-electorate-is-likely-to-double-by-2030/>
- Tramonte, Lynn. 2012. "GOP's 'Demographic Cliff' and the New Politics of Immigration."
<http://americasvoiceonline.org/blog/gops-demographic-cliff-and-the-new-politics-of-immigration/>
- Wikipedia. 2012.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2012."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election